

금 사러간 엄마 못 사고 왔대요

황금의 화가로 유명한 구스타프 클림트의 '아델레 블로흐-바우어의 초상' (1907). 위키미디어커먼스



Cover Story 금은방에 금이 없다...전 세계가 전전금순

요즘 신문과 방송에 “금값이 사상 최고치에 올랐다”는 뉴스가 자주 나오고 있어요. 금은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물건이죠. 요즘 유독 금값이 많이 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경제가 흔들릴 때 사람들은 “안전하게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고민하게 되죠. 그럴 때 주로 찾는 것이 ‘금’이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 금은 흔들림이 적은 ‘안전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금값이 오른다는 것을 바꿔 말하면 요즘 경제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경제가 불안한 이유 중 하나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여러 나라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높은 세금(관세)을 매기겠다고 했어요.

수입 제품 가격을 높이고 수입 규모를 줄여 자국(미국) 내 생산을 늘리고자 한 것이죠. 이에 대해 중국과 캐나다 정부가 “우리도 미국에 관세를 물리겠다”며 보복 관세를 발표했고 이로 인해 국가 간 무역갈등이 심해지고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졌어요. 그러자 금값도 따라서 올랐습니다.

금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 금을 사려는 사람들이 한층 더 늘어나면서 한국에서는 실제로 금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평소 시중은행들은 한국조폐공사나 한국금거래소 등에서 금괴(골드바)를 공급받아 판매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폐공사가 “더 이상 골드바를 공급할 수 없다”고 밝혔어요.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아예 골드바 판매 창구를 닫아버렸고 신한은행은 제련업체인 LS MnM을 통해 공급받은 1kg 골드바만 판매하고 있어요.

서울 종로3가처럼 금 거래가 활발한 금은방에서도 “금이 들어오지 않아 주문을 받아도 당장 팔 수가 없다”고 해요. 이렇게 금을 사기조차 어렵게 되니 ‘골드바 품귀’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금값은 어디까지 오를까요? 연초 온스(31.1g)당 2600달러 정도였던 금값은 최근 2900달러까지 올랐어요.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올해 말 금값이 온스당 310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내다봤어요. 경제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330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해요.

앞으로 경제 뉴스에서 ‘금값’ 이야기가 자주 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금값이 왜 오르고 내릴까?” 궁금증을 갖고 뉴스를 읽으면, 경제가 돌아가는 흐름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김혜순 기자



국가공인 **매경 TEST**

학생부 기재 가능 경제경영이해력시험

사람 같은 로봇... 집에서도 볼 수 있어요



쉽게 이해하는
시사뉴스



BMW 미국 공장에 시험 투입된 피규어사의 휴머노이드 로봇 '피규어 02' 모습.

피규어사 유튜브 공식 채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회사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이 최근 로봇 전용 배터리를 함께 만들기로 합의했어요. 2023년 현대차가 차세대 전기차에 삼성SDI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밝힌 이후 두 번째 협력 사업이에요. 두 그룹이 다시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산업계의 화제를 모았어요.

우리나라 최고 기업들이 손을 잡은 건 로봇, 그중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서예요. 엄청나게 로봇 사업에 투자하는 미국과 중국에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있었던 것이죠. 홀로 개발에 나서는 것보다 협력하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뭐야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과 비슷한 모습과 움직임을 가진 기계를 말해요. 과거에는 공상과학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실제 생활에 투입되고 있어요.

과거 산업 현장에서 로봇은 아주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옮겨야 하는 등의 단순노동만 할 수 있었어요. 반면 발전된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주 미세한 작업까지 할 수 있어요. 인간과 비슷한 신체와 두뇌를 갖췄기 때문이에요.

직접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거대한 유통 창고를 생각해 보세요. 아주 거대한 상자는 로봇이 옮겨요. 하지만 작은 택배 상자에 라벨을 붙이고 이를 컨베이어 벨트에 옮기는 건 사람이 해야 해요. 미세한 수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어느 차에 어떤 택배를 실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등 두뇌를 쓰는 일도 로봇이 할 수 없죠.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과 비슷한 신체 구조와 두뇌 격인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를 갖춰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기존에 없던 모델이라 성장 가능성이 엄청날 것으로 보이는 영역이기도 해요.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집안에서 하는 모든 허드렛일을 로봇이 하는 세상이 열릴 수 있는 거예요.

로봇 투자 나선 대기업들

세계 유수의 기업들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잇따라 투자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가장 앞선 기업은 세계적인 전기차 회사 테슬라예요. 테슬라는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해 올해 말까지 자동차 생산 현장에 약 1000대를 투입할 계획이래요. 옵티머스는 사람처럼 손가락이 다섯 개라 아주 세밀한 작업이 가능하다고 해요. 기존 로봇이 '집게손가락'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장족의 발전을 한 셈이죠.

현재 자동차 공장에선 무거운 고철을 옮기고 용접을 하는 등 위험한 일은 기계가 하지만, 품질 관리 및 최종 확인 마무리 작업은 인간이 해야만 해요. 하지만 옵티머스가 투입되면 현재 인간이 하는 많은 작업을 로봇이 하게 될 걸로 보여요. 처음부터 끝까지 로봇이 만든 자동차가 나오는 세상이 열릴 수 있게 된 셈이에요.

우리나라 현대차가 2020년 12월 미국 로봇 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것 역시 미래 로봇 시장 공략을 염두에 둔 것이었어요. 삼성전자도 최근 로봇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지분을 인수했고요.

속속 자라는 로봇의 난관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 가정까지 들어오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 과제도 남아 있어요. '불쾌한 골짜기' 문제가 그중 하나예요. 로봇이 인간을 어설피게 닮을수록 오히려 불쾌함이 증가한다는 심리적 현상을 말해요. 최근에 일부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개됐을 때도 사람들은 "기괴하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감정이 전혀 담기지 않은 채로 입만 뽕뽕뽕뽕하며 말하는 게 이상해 보인 거예요.

굴지의 대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만큼 휴머노이드 로봇은 공장에서 집까지 성큼성큼 우리 삶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 충격파도 해마다 커질 전망이에요. 우리는 어떤 표정으로 로봇에 인사를 건네야 할까요. 매일경제 DIG

경제공부 필수품
온·오프라인
서점서 만나세요



회장
발행·편집·인쇄인

장대환
장승준

등록번호 : 서울, 다50736
발행간격 : 주간
발행소 : 04627 서울 중구 퇴계로 190 매경미디어센터

경제경영연구소 이메일
구독 문의
광고 문의

teen@mk.co.kr
(02) 2000-2383
(02) 2000-2200

매경·금융저축정보센터 기획

후원



신한은행

KYOBO



우정사업본부

MERITZ

한국투자증권



경제 불안하다고 느끼면 사람들은 왜 금을 살까요



UNSPASH

여러분, 금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반짝이는 목걸이나 팔찌 같은 액세서리가 먼저 생각날 수 있어요. 혹은 영화에서 보듯이 큼직한 금괴를 떠올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알고 보면 금은 단순한 장식품을 넘어 대표적인 투자자산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제가 불안정해질 때마다 사람들이 금을 찾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금이 왜 안전자산으로 불리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안전자산이란 무엇일까?

안전자산이란 경제 상황이 나빠져도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자산을 말해요. 예를 들어 주식이나 비트코인은 하루하루 가격 변동이 심하죠. 하지만 금과 같은 자산은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일이 드물었어요. 그렇다면 왜 금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일까요? 금은 화폐처럼 쓰이면서 옛날부터 귀하게 여겨져왔고 전 세계 사람들이 가치 있는 물건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게다가 지구상에 있는 금은 한정적이예요. 새로운 금광을 찾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죠.

금값, 왜 오르지?

학교 수업시간이나 책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경제 개념이 바로 '수요와 공급'이에요. 수요는 어떤 물건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욕구, 공급은 사람들이 그 물건을 팔려고 실제 시장에 내놓는 양을 뜻해요. 예를 들어 한정판 신발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신발 가격이 오르죠. 또 신발을 만들 수 있는 양(공급)이 너무 적다면 더욱 귀해져서 가격이 더 높아져요.

금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금을 많이 사고 싶어 하는데(수요 증가), 광산에서 금이 많이 나지 않거나(공

급 부족), 시중에 유통되는 금괴(골드바)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금값이 상승하게 된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등 여러 나라에 높은 관세를 매기면서 무역갈등이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혹시 경제가 더 나빠질 수도 있겠는데?"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이 금이에요.

경제가 불안할 때는 금 같은 안전자산을 사두면 비교적 가치가 크게 떨어지지 않아서 안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각국 중앙은행까지 금을 많이 사들여서 금 수요가 더욱 늘어났어요. 하지만 금은 지구상에 한정된 양만 있고, 새로 캐내는 속도도 빠르지 않아요. 결국 사려는 사람(수요)은 많은데, 시장에 나오는 금(공급)은 많지 않으니, 금값이 꾸준히 올라가는 거예요.

금에 투자하는 방법?

가장 먼저 은행이나 금은방에서 골드바를 직접 살 수 있어요. 이 방법은 실제로 금을 손에 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관이 까다롭고 도난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은행에서 파는 '금 통장'에 가입해 일정 금액만큼 금을 사는 방식도 있어요. 이 방법은 실물 금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지만 수수료 등이 붙을 수 있고, 거래 조건이 은행마다 달라 유의해야 합니다. 금 상장지수펀드(ETF)는 증권사 계좌로 주식처럼 금 관련 ETF를 사고파는 방식으로 소액으로 쉽게 투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투자는 늘 신중해야 해요. 금값이 계속 오르는 건 아니니까요. 전 세계 무역갈등이 해결되거나 경제 상황이 안정되면 금값이 다시 내려갈 수 있어요. 많은 돈을 한꺼번에 투자하기보다는 적절한 시점과 방법을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혜순 기자

주식·비트코인과 다르게
금값은 변동성 크지 않아
세계 어디서든 화폐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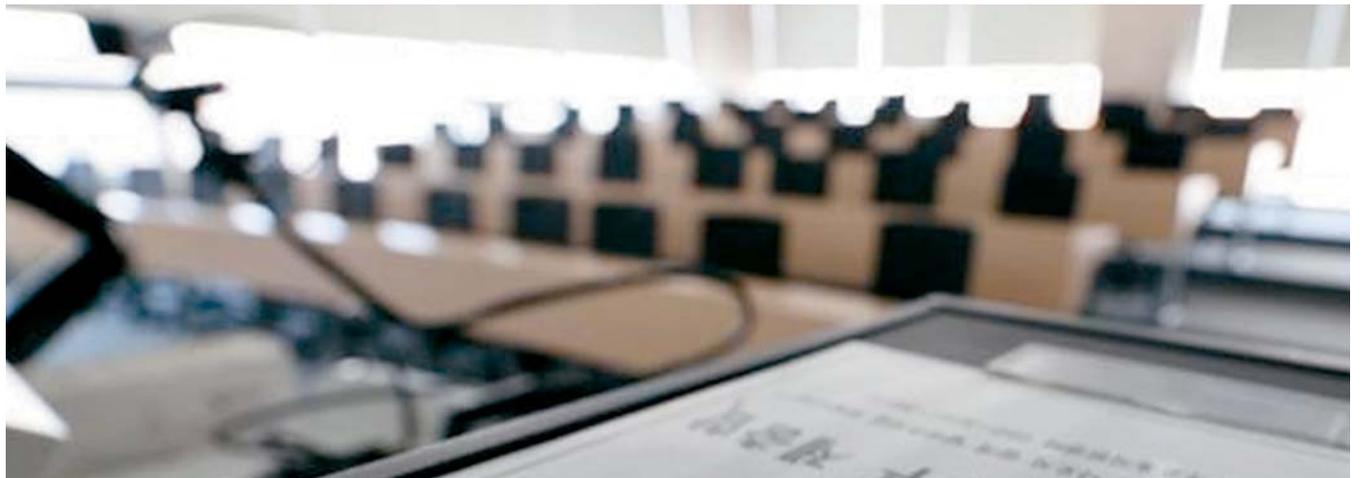
글로벌 경기 불안할수록
금 수요 늘며 가격 뛰어

골드바 직접 구매하거나
금통장 등 투자방식 다양

1년 만에 원점... 내년 의대 증원 안한다고



꼭 알아야 할
최신 뉴스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강의실의 모습.

연합뉴스

의대 정원 다시 3058명으로

작년부터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의대 증원 사태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지난 7일 ‘의대 복학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기존에 발표했던 2000명 증원을 취소하고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3058명 동결안은 지난 2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의대학장협의회 건의를 통해 제안됐으며, 정부는 이안을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고 수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교육 방안은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이 정상적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고 있는데요. 이는 의료

▶ NIE 준비하기

1.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철회한 이유에 대해 알아봅시다.
2. 해당 사태가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교육이 중단돼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고 빠르게 논란을 끝내기 위한 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에 “1년간의 노력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 맞느냐”는 의견과 “최대한 빨리 의료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안 좋아질 확률 30%→4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으로 인해 현재 미국은 경제적 위험에 처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크고 역사가 오래된 은행인 JP모건체이스는 지난 11일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을 30%에서 40%로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작년 11월 말보다 무려 23%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앞으로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관세 인상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성장률이 둔해지

▶ NIE 준비하기

1. 관세 인상이 어떻게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공부해 봅시다.
2.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는 가운데 계속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가장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관세 전쟁이 계속해서 심해진다면 미국의 경제 상황은 어떻게 변할까요?

LH, 올해 임대주택 8만8000호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6일 올해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8만8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중 분양 주택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해 2만4000호, 임대주택은 6만4000호(매입임대 2만2000호, 전세임대 3만2000호 등)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2024년 LH의 공공분양 실적은 5275호로 올해 목표는 작년의 4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LH의 주택 공급 계획을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요. 수도권에 공급이 집중돼 지역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점, 실제 아파트가 지어지는 착공률이 낮고 사업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적절하지 못한 무리한

▶ NIE 준비하기

1.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유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2.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토론해 봅시다.

공급으로 빈집이 증가한다는 점이 논란의 원인입니다. 실제로 올해 분양 주택의 77%가 수도권에 위치하며, 작년 신축 매입 목표 달성률은 3%에 그쳤는데요. 앞으로 적절한 접근성과 수요 파악으로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박현진 연구원



3058명

원점으로 돌아간
의대 정원 수

30%→40%

미국 경제침체
확률 상향조정

8만 8000호

2025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공급 목표

“오래된 실험실 고쳐야” vs “우리 아빠 허리 휘어요”

국내 대학교 등록금 인상

국내 대학교가 줄줄이 등록금을 인상한 상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정부는 각 대학교에 등록금 동결을 권고해 왔습니다.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배제’라는 초강수를 뒀 사실상 대학교에 등록금 동결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왔습니다.

작년 교육부가 불경기 속에서도 대학 등록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지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10곳 중 7곳이 2025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립대의 경우 10곳 중 8곳이 인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대학 측과 학생 및 학부모 측의 입장 차이가 있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찬성합니다



이의있어요

▶ 교육 환경 개선 및 학습의 질 향상

등록금 인상을 통해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게 된다면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습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학들은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등록금을 동결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강의실, 실험실, 도서관 등 주요 교육시설이 심각하게 노후됐으며 학생들의 학습 환경 또한 열악해졌습니다. 시설 유지·보수 및 최신 기술 장비 도입에 필요한 재원을 인상된 등록금을 통해 확보하면, 더 나은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등록금 인상은 우수한 교수진 영입과 연구 활동 지원의 기반이 됩니다. 교수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면 강의와 연구 수준이 높아져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가 제공됩니다. 한 대학교수는 “등록금 동결은 교수 임금 동결 문제를 넘어 우수한 이공계 인재들이 한국 대학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대학 재정난 해소를 위해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운영 자원 확보를 통한 미래 투자

등록금 수입은 대학의 주요 재원으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유지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 기반의 새로운 커리큘럼을 도입하려면 추가적인 재원이 필수적입니다. 팬데믹 이후 비대면 학습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고품질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과 플랫폼 운영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 또한 중요해졌습니다. 등록금 인상은 이러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지할 재원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등록금 인상은 재정적 여유를 확보하여 성적 우수자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장학금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는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 동시에 우수 인재를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대학은 학생들에게 더 나은 학업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며,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 학생·가정에 경제적 부담 증가

현재 학생들과 가정은 지속적인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은 학생과 가정에 추가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며,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의 생계 유지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니다.

대학생 김 모씨(25)는 한 인터뷰에서 “물가가 많이 올라 자취생들은 월세와 식비 부담이 크다”며 고충을 털어 놓았습니다.

또 등록금 인상은 학자금 대출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과도한 부채를 떠안게 되며, 이는 청년층의 경제적 독립과 원활한 사회 진출을 저해할 가능성이 큼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문제는 청년 세대의 재정적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재정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 문제

등록금 인상분의 재정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문제도 중요한 논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상을 통해 확보된 재원이 실제로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과 학습의 질 향상에 사용된다는 보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만약 대학이 확보한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거나 불필요한 행정비용에 사용한다면, 등록금 인상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대학들은 등록금 외에도 유학생 유치, 산학협력 연구비, 정부 지원금 등 여러 재정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등록금 인상은 이러한 노력을 생략한 채 문제를 해결하려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인상된 등록금만으로 대학의 악화된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은 장기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강현구 인턴기자



- 1 현재 많은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추진 중
- 2 대학 측 “교육환경 개선과 재정 확보 위해 필수적”
- 3 경제적 부담과 지속 가능성 우려 ↑

환자 치료할 때도 경제적 사고 필요해요



최병일 교수님의
길 위의 경제학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

매경DB

선택의 길에서 만나는 경제 이야기

최근 '중증외상센터'라는 드라마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공개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의사 출신 이낙준 작가가 집필한 웹소설 '중증외상센터: 골든 아워'를 원작으로 하고 있어 더욱 사실적인 의료 현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작가는 실제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였으나, 의료 현장을 떠나 전업 작가로 전향했다는 점이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독특한 주인공의 성격과 행동이 재미를 더 하며, 긴박한 의료 현장을 입체적으로 그려내 시청자들의 몰입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생사의 갈림길에서 헌신하는 의료진과 극적으로 살아나는 환자들의 모습은 전형적인 의학 드라마의 패턴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는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대형 대학병원에서 구한 생명의 수나 의료진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의 매출과 수익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장례식장, 주차장, 식당 같은 부대 시설이 주요 의료 부서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는 상황도 연출됩니다.

이는 흔히 경제학에서 말하는 '호모 이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경제적 인간)를 비판하는 전형적인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바로 다음 장면에선 경제학적인 사고를 따릅니다. 대형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드라마 인물들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경제학적 의사 결정을 내립니다. 주인공은 단순히 의료 기술이 뛰어난 의사사가 아니라, 한정된 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하는 방식까지 고민하는 인물입니다.

해당 에피소드에서 대규모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이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입니다. 아무리 의료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도, 수십~수백 명의 응급 환자를 한꺼번에 수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즉, 응급 환자를 수용할 병상의 수, 즉각적인 수술이 가능한 의료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전까지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대학병원 과장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환자의 곁에서 직접

치료하며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대형 사고가 발생하자 그는 병원에서 최신 장비를 갖추고 환자를 기다리는 대신, 직접 사고 현장으로 향합니다.

주인공이 이동하는 시간 동안 그는 환자를 진료할 수 없기에 이는 걸으면 비효율적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의료진이 충분하고 환자들이 병원에 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병원에서 기다리며 치료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 사고처럼 의료 시설과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 제한된 의료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인공은 사고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환자 분류(triage)에 집중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분류 체계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START(색상 기반 트리아지·Simple Triage and Rapid Treatment) 시스템'입니다. 이는 대형 재난 상황에서 응급의료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토콜입니다.

이처럼 응급 상황에서는 정확한 분류가 치료보다 중요합니다. 잘못된 분류로 인해 덜 위급한 환자가 우선 치료를 받거나, 살릴 수 없는 환자에게 의료 자원이 낭비된다면, 그만큼 살릴 수 있던 환자들을 포기하는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 발생합니다.

대형 사고 발생 상황에서의 환자 분류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희소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현대사회는 산업혁명 이후 역사적으로 가장 풍족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기본적인 생존 문제보다 더 나은 삶, 더 즐거운 삶을 고민합니다.

그러나 드라마에서와 같이 희소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선택이 필요합니다. 경제학은 드라마 속 위급한 사고 현장에서처럼, 소중한 자원을 어떻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러한 선택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개념이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우리는 보통 돈을 지출해야만 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기회비용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포함합니다.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포기한 것 중 가장 가치가 높은 것이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방학 동안 집에서 게임을 하고 유튜브를 보는 선택을 했다면, 걸로 보기에 돈을 쓰지 않았으므로 비용이 들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을 함으로써 더 좋은 성적을 받을 기회, 더 건강한 신체를 만들 기회를 포기한 셈입니다. 이것이 기회비용입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체력, 그리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의지력 등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무한하다고 착각하면 필연적으로 비효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당장 돈을 쓰지 않더라도, 내가 내리는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기회비용이 따릅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번 학기에 세운 목표나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진 공허한 희망에 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선택의 기회비용을 항상 염두에 두며,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이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강원대 일반사회교육과 조교수



시사용어CHECK

START 환자 분류 시스템

▷ 검은색 : 생존 가능성이 없거나 회복 불가 환자.

▷ 빨간색 : 생존 가능성이 높으나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

▷ 노란색 :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로, 응급 치료가 필요하지만 약간의 치료 지연이 허용되는 환자.

▷ 초록색 : 치료가 필요하나 응급 상황이 아닌 환자.

미식축구 우승자 내기에 2조 걸었다고요?



이번 시즌 NFL 챔피언이 결정된 슈퍼볼 LIX.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압도적인 모습으로 우승을 차지한 이 게임에는 13억달러가 넘는 합법적인 베팅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AP연합뉴스



올어바웃 스포츠

지난달 열린 미국프로풋볼(NFL) 챔피언 결정전인 슈퍼볼 LIX(59)에 대한 관심은 여느 해보다 높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람 예고로 현직 미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첫 번째 대회가 됐고, 캔자스시티 치프스가 NFL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3연속 우승에 도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또 다른 결승 진출팀인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압도적 승리로 끝나 다소 싱거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기록이 경기장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그중 주목을 끄는 것은 바로 이 경기를 놓고 오간 ‘베팅액’이었습니다.

미국게임산업협회(AGA)에 따르면 이번 슈퍼볼을 둘러싸고 합법적으로 베팅된 금액은 13억9000만달러(약 1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직전 슈퍼볼보다 11.2%나 높은 수치죠.

‘스포츠토토’를 제외하곤 스포츠베팅이 불법으로 규정된 한국에는 생소하지만 미국의 스포츠베팅 열풍은 가히 선풍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인 10명 중 4명은 합법적인 스포츠베팅에 참여하고 있고 관련 산업도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미국 내 스포츠베팅 시장 규모는 1500억달러에 달하는데 전년 대비 24% 성장했습니다. 올해엔 2000억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죠. 수익 규모로 따지면 2018년 3억3000만달러에서 지난해엔 148억7000만달러로 6년 만에 50배 가깝게 성장했습니다.

미국 스포츠베팅 시장의 성장은 2018년 미국 대법원 판결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당시 대법원은 ‘프로 및 아마추어스포츠보호법(PASPA)’을 위헌으로 판단하며 합법적인 스포츠베팅 저변을 넓히는 길을 마련해줬습니다.

이전까지 네바다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스포츠베팅이 불법이었으나 이후 각 주가 개별적으로 스포츠베팅 합법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후 드래프트킹즈, 팬듀얼, BetMGM 온라인 베팅 회사가 등장하며 사람들이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베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베팅이 전체 베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80%를 넘어섰습니다.

뉴욕주에선 2023년 한 해 동안 모바일 베팅으로 180억달러(약 25조원)의 돈이 쏟아져 전체 베팅 시장의 98%를 차지했습니다.

2023년 기준 NFL은 베팅 업체들과 광고·스폰서십 계약을 통해 12억달러(약 1조5000억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NBA 역시 베팅 파트너십을 확대해 자금 확보에 나선 상황이죠. 심지어 일부 구단들은 경기장 내 베팅 라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베팅이 활성화하면서 팬들의 몰입도도 올라갔죠. 닐슨리서치에 따르면 스포츠팬 중 베팅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일반 시민에 비해 72%나 컸습니다. 팬들이 베팅을 통해 경기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지고 이는 전체적인 스포츠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화려한 돈놀이’ 뒤에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입니다. 5~6년 만에 벌어진 급격한 변화가 스포츠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대표적으로 선수들이 베팅과 관련된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4월 NBA 토론토 랩터스의 포워드 존테이 포터는 승부 조작 혐의로 NBA에서 영구 제명됐습니다. 포터는 NBA 2부 리그인 G리그에서 뛰는 동안 경기 내부 정보를 스포츠베팅업자에게 흘리고, 자신의 부상 이력도 미리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산드로 토날리도 스포츠베팅에 연루된 혐의로 10개월 출장정지를 받기도 했죠. MLB의 스타 오타니 쇼헤이의 전 통역사도 스포츠베팅에 빠져 오타니의 계좌에서 1600만달러를 빼돌려 큰 물의를 일으켰죠.

시민들의 도박중독 문제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도박문제연구소(NCPG)에 따르면 작년 미국 성인 인구 중 약 7%가 도박 관련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2018년 대비 30%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베팅 중독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18~34세 남성의 70% 이상이 스포츠베팅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들 중 상당수가 주말마다 스포츠베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선 스포츠베팅의 순기능을 뛰어넘는 부작용을 감안하면 보다 강력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도박중독 문제와 경기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은 만큼 정부와 스포츠 단체들이 균형 잡힌 규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류영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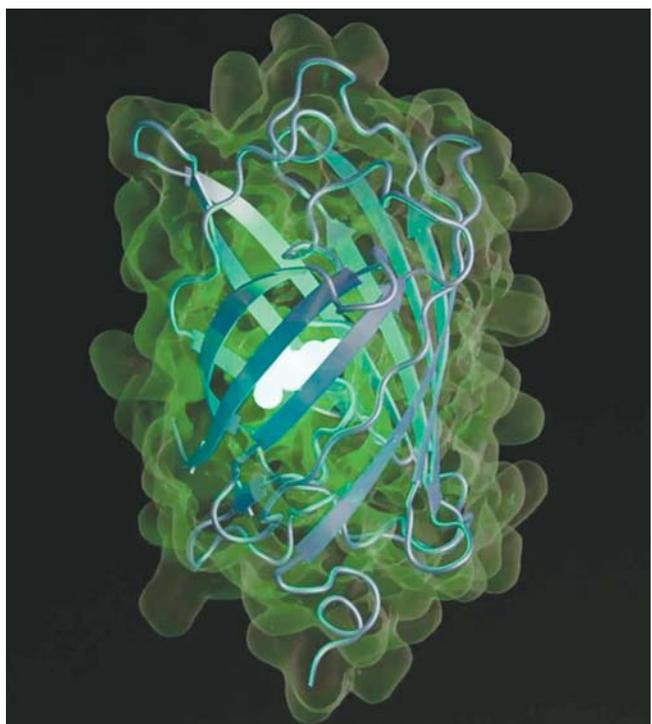


스포츠정보 CHECK

시장이 커지면서 프로스포츠 리그들도 베팅 회사와의 협업을 또 다른 수익 창출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NFL, 북미프로농구(NBA), 메이저리그(MLB), 북미 아이스하키리그(NHL) 등 북미 4대 리그는 스포츠베팅 업체들과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5억년 걸려 만들어지는 단백질, AI는 단번에



이볼루션스케일(EvolutionaryScale)이 만들어낸 새로운 인공 단백질. 이볼루션스케일

지난해 메타(옛 페이스북) 출신 과학자들이 설립한 스타트업이 자연적으로 5억년이 걸려야 만들어질 수 있는 단백질을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기술을 활용해 개발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주목받았던 연구의 논문이 최근 국제 학술지에 발표됐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 단백질을 만들 수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타트업 ‘이볼루션스케일(EvolutionaryScale)’과 UC버클리 공동 연구진이 ‘언어모델을 이용한 5억년의 진화 시뮬레이션(Simulating 500 million years of evolution with a language model)’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했습니다.

이 스타트업은 지난해 6월 1억4200만달러, 우리 돈 약 2053억원을 투자받으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설립자들이 메타에서 단백질을 연구하던 연구자라서 더 주목받았는데요. 이들은 메타에서 AI를 기반으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ESM 폴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 봄 메타는 대규모 감원과 함께 이 팀을 해체했습니다. 당장 돈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당시 이들은 곧바로 메타를 나와 스타트업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이들은 출판 전 논문을 게재할 수 있는 ‘아카이브’에 눈길을 끄는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AI를 기반으로 반짝거리는 형광 단백질을 설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었는데, 자연에서 이러한 진화가 이어지려면 5억년의 세월이 걸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이언스에 올라온 이들의 연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들은 메타에서 연구하던 ESM3라는 언어모델을 소개합니다. 이 모델은 단백질의 ‘서열’과 ‘구조’ ‘기능’을 고려해 새로운 단백질을 만드는 AI입니다.

우리가 ‘건강히’ 살려면 단백질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은 신약 개발 분야에서도 중요한데, 질병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에 결합하는 약물을 만들면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나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백질의 구조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연구 분야였습니다.

단백질은 수십~수천 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아미노산이 얽히고설켜 만들어지는데,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찾아낸 단백질의 종류는 2억개에 달합니다. 이 중 인간에게서 발견된 것은 2만개 정도 되고요.

다시 연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SM3 모델은 단백질의 3D 구조는 물론 기능적 특징을 고려해 ‘새로운’ 단백질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에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특징 등을 학습한 AI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단백질 구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ESM3는 수억 개의 단백질 서열과 구조, 기능 등을 학습했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의 형광 단백질(GFP)을 변형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GFP에서 형광을 내는 아미노산 서열을 ESM3 모델에 입력했더니 ESM3가 나머지 서열을 생성해 최적화된 단백질을 디자인해줍니다. 이후 실제 실험을 통해 최종적으로 esmGFP라는, 빛을 내는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기존 자연에 없던 ‘인공’ 단백질인 셈입니다. esmGFP는 기존 GFP와 서열 유사성이 58%였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진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무려 5억년. 연구진은 ESM3가 단백질의 특정 부분은 유지하면서 크기를 줄이거나 새로운 구조를 설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밝힙니다.

이번 연구가 가진 의미는 상당히 큼니다. 기존에는 자연에 존재하는 단백질을 찾아내고, 구조를 밝힌 뒤 이를 기반으로 활용법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자연에서 발견되지 않은 단백질까지 만들 수 있는 만큼 이는 새로운 치료제 개발은 물론 산업적 응용 가능성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SM3와 같은 AI가 등장했다고 해서 지금당장 우리 삶이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단백질의 구조를 찾고,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도 실제 이것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지, 부작용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공 단백질이 세상으로 뿔뿔이 나갔을 때 기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AI가 발전하면서 기존에는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난제들이 어느 순간 해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미래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원호섭 기자



교과서 밖 과학이야기



- 1 메타 해고된 연구자, 스타트업 설립
- 2 AI와 만난 단백질 구조 예측
- 3 신약 개발 등 여러 분야 활용 기대

유튜버가 되고 싶은데, 글쓰기가 왜 필요하지?



이상수 선생님의 글쓰기 교실

지후: 삼촌, 난 게임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요. 크리에이터에게 제일 필요한 능력은 뭐예요?

삼촌: 음, 글쓰기 실력이 중요하지.

지후: 크리에이터는 영상만 잘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글쓰기가 왜 필요해요?

삼촌: 어떤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지후: 롤 (LoL) 게임에 관한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삼촌: 그렇구나. 그런데 크리에이터가 되려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야 할 텐데, 전체적인 콘셉트는 생각해 봤어? 어떤 순서로, 어떤 스토리를 이어갈지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지후: 그렇군요. 그런데 그게 글쓰기랑 무슨 관계예요?

삼촌: 영상을 찍기 전에 어떤 영상을 만들지, 어떤 순서로 촬영할지 계획이 필요해. 그리고 각 영상을 찍으려면 시나리오가 먼저 나와야겠지.

지후: 나는 그냥 대충 생각나는 대로 찍으려고 했는데.

삼촌: 1분 남짓한 쇼츠 영상을 찍으려고 해도 시나리오가 필요해. 그렇지 않으면 시간 낭비만 될 거야.

지후: 삼촌, 그럼 나 글쓰기 좀 가르쳐 줘요.

삼촌: 그럴까.

삼촌: 지후는 글쓰기가 왜 그렇게 싫니?

지후: 뭘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삼촌: 지후가 좋아하는 롤 (LoL)에 대해 써 보면 어때?

지후: 롤에 대한 거라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촌: 좋아, 그럼 롤에 대한 글을 써 보자. 글쓰기 전에 삼촌이 몇 가지 물어볼게. 글을 누가 읽었으면 좋겠어?

지후: 누가 읽을지는 생각 안 해 봤는데, 꼭 정해야 한다면 롤을 처음 접하는 또래 친구들이 읽었으면 해요.

삼촌: 좋은 생각이야. 롤에 대해 무엇을 쓰고 싶어?

지후: 롤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내가 롤을 좋아하게 된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삼촌: 그렇구나. 그럼 뭘 쓸지는 정했네. 이제 간단하게 개요를 짜 볼까?

지후: 삼촌, 그런데 개요가 뭐예요?

삼촌: 개요는 글의 뼈대 같은 거야. 글을 쓰는 건 집을 짓는 거랑 비슷해. 집을 지으려면 먼저 뭘부터 해야 할까?

지후: 설계도!

삼촌: 빙고! 개요는 내가 쓰려는 글의 설계도야.

지후: 그럼 개요를 어떻게 짜요?

삼촌: 우선 글을 쓰는 목적, 글을 읽었으면 하는 대상, 그리고 쓰고 싶은 내용을 정리해 보면 돼.

지후: 글을 쓰는 목적은 롤을 소개하는 거고, 대상은 롤에 관심 있는 초보 중딩들. 쓰고 싶은 내용은 내가 처음 롤을 접했던 이야기, 내가 롤에 푹 빠지게 된 이유, 그리고 롤을 처음 시작하는 방법 정도.

삼촌: 멋진 개요를 짰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글을 써 볼까?

내 글이 뭐 어때서? : 글쓰기를 혐오했던 중학생의 성장기

글쓰기 교사인 괴짜 삼촌이 오랜만에 조카 지후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삼촌은 마흔이 넘었지만 미혼이고, 지후네 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수영을 하지 않지만, 겨울마다 부산에서 열리는 ‘북극곰 바다수영대회’에는 빠지지 않고 참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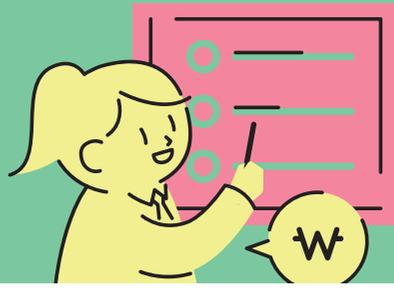
또 자기는 시간 여행자라며, 과거나 미래에 대해 궁금한 일이 있으면 물어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지후가 다음주 복권 당첨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자, 그것은 ‘시간 여행자법’ 위반 사항이라 안 된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삼촌이 괴짜임은 분명합니다. 지후는 게임에 푹 빠져 지내는, 글쓰기를 무척 싫어하는 평범한 중2입니다.

삼촌은 지후가 글쓰기를 무척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글쓰기 과제가 나올 때마다 툭툭거리 는 모습을 여러 번 봤거든요. 책은 그냥 읽으면 좋은데, 독 후감은 왜 써야 하는지, 여행을 다녀온 기행문은 왜 써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평하곤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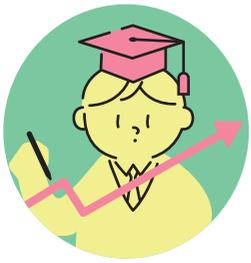
한 번은 가고 싶은 고등학교에 지원하려면 자기소개서를 써야 하는데, 차라리 학교를 포기하겠다는 말까지 했죠. 이런 지후가 삼촌에게 먼저 글쓰기를 배우고 싶다고 하더니! 글쓰기 교사인 삼촌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지후와 삼촌의 글쓰기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육실천이음연구소 연구위원

글쓰기 콕콕!

1. 뭘 써야 할지 모를 때, 내가 겪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부터 써보세요. 글을 쓰려고 할 때 처음 부딪히는 어려움은 뭘 써야 할지를 모르는 막막함입니다.
2. 개요를 먼저 짜 보세요. 글을 쓰는 목적, 독자 대상, 쓰고 싶은 내용을 정리하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3. 일단 써 보고 생각하세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나 느낌은 글로 옮겨 보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노트에 손으로 쓰든, 컴퓨터로 입력하든, 휴대폰 메모장에 적든 눈으로 직접 봐야 생각이 정리됩니다.
4. 30분 타이머를 맞추고 게임하듯 써 보세요. 생각을 꺼내 글로 표현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글을 쓰려고 하면 생각이 여러 갈래로 흩어지고, 단어 선택에도 혼란을 겪게 되죠. 한 편의 글을 끝까지 쓰려면 집중력과 끈기가 필요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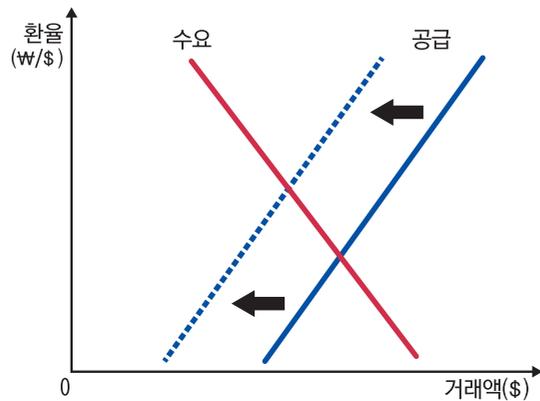


환율은 왜 오르락내리락 할까요



틴매경TEST
공부합시다

<문제>
최근 아래 그림처럼 외환시장에 변화가 발생했다. 이 때 예상되는 효과로 옳은 것은?



[그림1] 외환시장의 변화

- <보기>**
- ①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상승한다.
 - ② 미국 여행을 계획 중인 한국 관광객의 비용 부담이 감소한다.
 - ③ 미국산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여 한국의 국내 물가 상승압력이 감소한다.
 - ④ 미국에 유학 중인 자녀에게 생활비를 송금하는 한국 가계의 부담이 완화된다.
 - ⑤ 미국 반도체 기업 주식에 투자한 한국 투자자의 경우 환율 변화에 따른 손실이 발생한다.

<해설>
[그림1]은 달러화 공급 감소로 달러화 가치가 상승(달러화 가치 상승·원화 가치 하락)한 상황으로 이 경우 달러화로 표시한 한국산 제품 가격이 하락하고 원화로 표시한 외국 제품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는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①→O)이지만 수입품의 가격 상승을 일으켜 국내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③→X)합니다.

또 달러화가 비싸짐에 따라 미국 여행 경비와 미국 생활비 송금에 더 많은 금액이 필요(②, ④→X)합니다.

환율 상승은 주식, 채권 등 해외 자산 투자 수익에도 영향을 줍니다. 주식의 경우 투자자는 시세차익과 배당금을 기대할 수 있으며 해외 주식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익 내지 환차손이 따릅니다. 이 경우 원화로 표시한 달러화 자산 가격이 오른 것이므로 시세차익과 배당금 외에도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⑤→X)입니다.

정답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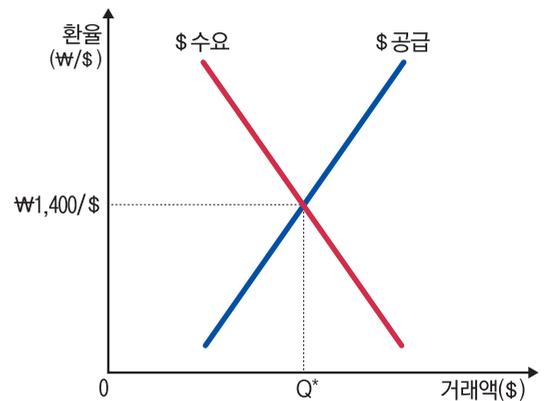
환율은 두 나라 통화 간 교환 비율로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외국통화(외환·foreign exchange)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원·달러 환율 '1400/\$'은 1달러와 1400원이 서로 맞교환된다는 뜻으로, 간단히 '1달러=1400원'으로 쓰기도 합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은 원화로 표시된 달러화 가격이 비싸진다는 것으로 달러화 가치 상승 및 원화 가치 하락을, 원·달러 환율 하락은 달러화 가치 하락 및 원화 가치 상승을 뜻합니다.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은 외환이 거래되는 외환시장의 수요·공급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품의 달러화 표시 가격이 하락해 해외 시장에서 수출품의 가격이 싸집니다.

반면 수입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상승해 국내 시장에서 수입품의 가격이 비싸집니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 상승은 수출 증가와 수입 감소로 이어집니다. 수출은 달러화 공급 요인, 수입은 달러화 수요 요인이므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화 공급은 늘어나고 달러화 수요는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고, 달러화 수요는 우하향한다는 뜻으로 환율은 [그림2]에서와 같이 달러화 공급과 수요가 교차하는 곳에서 결정됩니다.



[그림2]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수요·공급 변화로 촉발되며, 달러화 수요 감소나 공급 증가는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달러화 수요 증가나 공급 감소는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와 같은 환율 변화는 물가, 국민소득 같은 국민경제 전체는 물론 투자자 개인의 투자수익 및 해외여행객의 여행 경비,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의 이익에까지 두루 영향을 미칩니다.

최봉제 경제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

시사용어CHECK

변동환율제

외환당국이 사전에 목표 환율을 설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아닌,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 조건에 의해 환율이 결정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외환위기 시기인 1997년 12월 16일부터 현재까지)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러일 전쟁 이긴 日... 돈 때문에 질뻔했다고?



청일전쟁에 종군했던 프랑스 화가 조르주 비고가 그린 풍자화로 당시 조선의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다.

위키피디아



임하빈 선생님의
돈이 움직인 세계사

우리가 배웠던 역사를 기억해 봅시다. 영원할 것 같던 로마제국은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멸망했고, 조선은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의 침략을 막지 못하고 결국 합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의 근본 원인에 ‘돈’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돈은 실제로 세계사의 많은 장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과 세계사의 몇 장면을 돈과 경제의 관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꽤 재밌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결국 사람은 과거로부터 배우기 마련이니까요.

오늘은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두고 1904년부터 러시아와 일본이 벌인 러일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는 당대 최강국인 영국, 프랑스 등에 비해 부족했지만 나름 강대국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일본은 근대화를 이룬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흥 세력이었죠. 러시아의 군사력이 더 강한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막상 전쟁을 시작하자 일본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일본이 승리한 이유로는 러시아에 비해 짧은 보급선, 러시아 함대가 너무 먼 거리를 항해해서 일본으로 온 점 등이 꼽힙니다.

그런데 일본은 전쟁을 시작한 직후에는 돈 문제 때문에 패배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였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전쟁을 벌이는 데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합니다. 전쟁 비용 때문에 국가가 파산한 사건도 역사에 심심찮게 등장할 정도죠. 당시 일본은 전쟁을 벌일 만큼 충분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거액의 국채를 찍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일본이 다른 나라에 비해 이자를 많이 주겠다고 했지만, 일본 국채를 사들여서 일본에 돈을 빌려주려는 나라가 없었다는 점이었죠. 일본이 질 게 뻔한데 누가 일본에 돈을 빌려주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때 유대인 자본가인 제이컵 시프가 등장합니다. 시프는 러시아 제국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탄압하는 것을 보고, 러시아와 싸우는 일본의 편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시프는 일본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했는데, 이 금액이 일본 전쟁 비용의 40%나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다른 유대계 자본가들을 설득하여 추가적으로 일본 국채를 사도록 한 것도 중요한 역할이었죠.

이 자금 덕분에 일본은 전쟁을 지속할 수 있었고, 최종

적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시프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일본 국채에 투자해 막대한 돈을 벌었죠. 만약 시프가 일본에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프가 일본 국채를 매입해 준 효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지만, 일본은 러시아와 비슷한 인명 피해를 겪었고,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양측의 재정이 거의 파탄 나기 직전에 전쟁을 멈췄기 때문에, 일본은 러시아에 전쟁 배상금을 뜯어낼 수도 없었습니다.

일본이 지출한 전쟁 비용은 약 1억9000만 파운드였는데, 거의 10년 치 국가 수입이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된 일본 정부는 이 빚을 갚기 위해 정부 지출을 줄이며, 조선을 비롯한 식민지들의 경영에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보다 체계적인 수탈을 하기 위한 토지조사사업도 이때 실시되었죠.

1914년에서 1918년 사이에 벌어진 1차 세계대전은 일본에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전쟁 물자를 팔아치우며 일본의 경제는 전쟁 전으로 겨우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일본이 팔아서 째깍하게 재미를 본 물건 중 하나가 바로 마약성 진통제인 모르핀입니다.

당시 전쟁으로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자 모르핀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이었거든요. 모르핀의 원료가 마약인 아편이고, 아편은 양귀비의 열매에서 채취되므로 대규모 양귀비 재배지가 필요합니다. 이에 일본은 식민지 조선을 아편 생산기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모르핀의 수요는 급감하였고, 일본은 남아도는 모르핀을 식민지 조선에 저렴하게 유통시켰습니다. 모르핀의 유해성을 잘 모르는 조선인들은 진통 효과가 뛰어난 모르핀을 경험하자 이를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했고, 의사들도 환자들에게 마구잡이로 투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에는 마약 중독자들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늘어난 마약 문제는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 때 강력한 마약 금지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벌린 돈, 그리고 그로 인한 일본의 아슬아슬한 승리가 반세기가량 우리 민족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산현초등학교 교사



시사용어 CHECK

1. 국채
국가가 자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돈을 받을 권리). 채권을 구입한 사람은 채권에 쓰인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게 됨.
2. 국가의 파산
국가가 자신의 빚을 갚지 못하는 사태로 국가부도, 디폴트, 또는 모라토리엄이라고 표현하기도 함.
3. 세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 해에 얻는 모든 현금 수입. 세금뿐 아니라 국가재산을 매각한 수입 등도 포함.

목이 길어진 기린 ... 이런 이유도 있었을까



이병철 시인의
시 소개

기린의 목엔 광채 나는 목소리가 없지만, 세상 모든 것을 감아올릴 수가 있지 그러나 강한 것은 너무 쉽게 부러지므로 따뜻한 피와 살이 필요하지

기린의 목은 뿔 달린 머리통을 높은 데로만 길어 올리는 사다리야 그리하여 공중에 떠 있는 것들을 쉽게 잡아챌 수도 있지만

사실 기린의 목은 공중으로부터 도망을 치는 종이야 쓸데없는 곡선의 힘으로 뭉쳐진 기린의 목은 일찍이 빛났던 뿔로 새벽을 굽는 거야

그때 태연한 나무들의 잎눈은 새벽의 신성한 상처와 피를 응시하지

아주 깊게 눈을 감으면 아프리카 고원이, 실눈을 뜨면 멀리서 덧과 올가미의 하루가 속삭이고 있지

저만치 무릎의 그림자를 꿰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기린의 목과 목울대 속으로 타들어가는 갈증의 숨을 주시할 때

기린의 목은 갈데없이 유연하고 믿음직스럽게 아름답지 힘들 캄캄한 모가지 꺾는 법을 모르고 있으니까

—이병일, ‘기린의 목은 갈데없이’

(시집 ‘아흔아홉 개의 빛을 가진’, 창비 펴냄, 2016)

시는 생명을 창조하고 진화시키는 ‘로고스’

종교나 과학에서는 창조와 진화를 대립쌍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둘은 상호 보완하는 게 아닐까요? 신이 창조한 생명들이 각각의 모습대로 진화해 세상에 적응했다고 믿는 것은 꽤나 합리적이고 또 낭만적이거든요.

시인의 상상력이 펼쳐 보이는 저 새로운 진화론에는 창조론도 함께 빛나고 있어요. 모든 시인은 창조자이기 때문이지요. 구약성경에 따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생명보다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말씀을 통해 생명이 창조되었고, 창조된 생명들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진화를 거듭했지요. 태초는 언어가 원관념이고 대상이 보조관념인 세계였습니다.

말씀이 부여한 기질에 따라 생명들은 세상에서 살아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로고스(logos), 원리와 법칙이라고 불러요. 이는 만물의 탄생과 습성을 결정짓는 강력한 힘이지요. 그러나 언어의 에너지가 가장 충만했던 태초 이래로 인간은 조금씩 ‘말씀’의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말씀의 자리에는 자본의 논리가 들어왔게 되었고, 언어는 상품사회의 보조적 수단이거나 획일화된 욕망의 기호로 한없이 가벼워졌어요.

그런데 시인의 시는 여전히 ‘말씀’이네요. 위의 시를 읽으면 우리는 언어가 지녔던 태초의 힘, 충만한 생명력이 회복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시가 생명을 창조하고 진화시키는 ‘로고스’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모든 것을 감아올”리는 기린

시인의 상상력에 따르면 기린의 목이 길어진 것은 “세상 모든 것을 감아올”리기 때문입니다. “뿔 달린 머리통을 높은 데로만 길어 올리는 사다리”가 되기 위해서지요. 또 “일찍이 빛났던 뿔로 새벽을 굽”기 위함이기도 하고요.

이제 기린은 사다리가 되었습니다. 새벽을 굽는 뿔이 되었습니다. 이 낮은 상상력은 신이 세상을 창조하던 바로 그 태초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기린에게 ‘사다리’라는 새로운 유전을, “뿔로 새벽을 굽는” 엉뚱한 습성을 부여했어요. 사다리가 되어 뿔로 새벽을 굽는 기린의 목은 “공중으로부터 도망을 치는 중”입니다.

사실 기린의 목은 공중과 친해야만 하지요. “공중에 떠 있는 것들을 쉽게 잡아챌 수” 있도록 진화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공중으로부터 도망을 치는 것일까요? 아마 기린은 ‘공중’이 진화의 목적지이자 종착점이 되기를 거부하는 듯합니다.

이 ‘공중’은 먹이활동과 생존의 문제로서 ‘먹고사는 일’에 해당하지요. 먹고사는 일을 잘 해내려면 기린은 목을 직선으로 뻗어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에서 기린의 목은 “쓸데없는 곡선의 힘”으로 뭉쳐져 ‘세상 모든 것 감아올리기’ ‘사다리가 되기’ ‘뿔로 새벽 굽기’ 같은 무용한 일들을 할 뿐입니다.

그 결과 “목울대 속”에는 “타들어가는 갈증의 숨”이 발생해요. 유용한 것 대신 무용한 것을 택한 대가로 궁핍과 고통을 얻은 것이지요.

무용함으로 기울어지는 정반대의 진화론

“나무들의 잎눈” 대신 “신성한 상처와 피”를 얻은 기린은 “아주 깊게 눈을 감”아요. “실눈을 뜨”고 “아프리카 고원”을 바라봐요. 육안으로 대번 파악되는 세계가 아닌, 눈을 감으면 보이는 심안의 세계, 실눈으로 멀리 보아야 보이는 작고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지요.

이 또한 무용한 일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인의 눈에는 이 “갈데없이 유연”한 기린의 목이 “믿음직스럽”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현대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일률적 진화를 거부한 채 물질문명이라는 공중으로부터 도망치는 중인 시인 자신의 모습과 닮아서일 거예요.

진화는 언제나 무용함을 버리고 유용함만을 택해왔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기린을 통해 유용함 대신 무용함으로 기울어지는 정반대의 진화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울대가 타들어가도 뿔로 새벽을 굽는 것에 힘쓰는, 육체보다는 정신의 풍요를 추구하는 시인의 유전이 “믿음직스럽게 아름답”기만 합니다.

단짠 ‘마라탕후루’ 유혹... 계속 먹으면 고생해요



마라탕과 탕후루, 일명 ‘마라탕후루’를 먹고있는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김보람 기자의
보람찬 건강이야기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된 김남남 양(가명)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친구들과 마라탕을 먹으러 갑니다. 얼큰한 마라탕 한 그릇을 똑딱한 뒤 달콤한 탕후루로 입에 남은 얼얼함을 달래는 것도 필수. 그 후 편의점에 들러 쫄면, 쿠키, 수건케이크 등 유행하는 디저트를 먹으며 SNS에 사진도 공유합니다. 그런데 김양이 얼마 전 ‘비만’을 진단 받았습니다. “당분간 마라탕은 물론 달고 짠 음식은 금지”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김양은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7명 중 1명은 ‘비만’

요즘 ‘마라탕후루(마라탕+탕후루)’ 같은 음식이 유행하면서 김양과 같은 비만 청소년이 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3년 9~17세 비만율은 14.3%였습니다. 7명 중 1명이 비만인 셈입니다. 2018년만 해도 비만율은 3.4%였는데 5년 만에 4.2배나 늘었습니다. 동북아시아 4개국(한국·중국·일본·대만) 중 한국 청소년이 가장 뚱뚱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비만은 지방이 몸에 지나치게 축적된 상태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매년 280만명이 비만으로 사망한다고 하며 2021년 비만을 ‘만드시 치료가 필요한 병’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비만은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예방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비만은 어떻게 진단할까요. 신체검사를 할 때 ‘BMI(Body Mass Index·체질량지수)’라는 걸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kg/m²)으로, 비만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이죠.

소아청소년의 경우 성별·나이를 기준으로 백분위수가 85~94.9면 과체중, 95 백분위수 이상은 비만에 해당합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성장상태 측정계산기’를 이용하면 본인의 비만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만은 높은 열량의 음식 섭취, 운동 부족, 유전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에너지 섭취량이 소비량을 넘으면 비만이 되기 쉽죠.

청소년기 비만...만성질환 발생 위험 커져

청소년기에 비만을 해결하지 않으면 각종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 친구들과보다 키가 덜 자랄 수 있습니다. 자존감 하락, 우울증 등 정신 건강

문제도 유발합니다. 또 성인이 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만성질환은 한번 생기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어서 먹는 음식을 제한하고, 약을 매일 먹는 등 평생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BMI가 비만 범위라면 부모님과 병원을 찾게 좋습니다. 합병증으로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원래 만성질환은 성인이 겪는다고 알려졌지만, 최근 청소년에게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류인혁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만 10세 이후 아이들 중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난다”며 “복부 비만이 심하거나 부모가 비만 혹은 고혈압, 당뇨 등이 있다면 합병증 위험이 더 크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신체활동이 비만 관리 ‘핵심’

비만은 약물로 치료할 수 있지만, 청소년은 생활습관 개선이 우선입니다. 식습관에선 ‘신호등 식사요법’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음식을 △초록군 △노랑군 △빨강군 세 가지로 나눕니다. 초록군은 자유롭게 먹고 노랑군은 먹긴 하되 과식은 삼갑니다. 빨강군은 되도록 피합니다.

초록군에는 오이, 배추, 무, 김, 미역, 다시마 등 야채류와 녹차 음료가 있고 노랑군은 사과, 배 등 과일과 기름기를 제거한 육류, 생선구이·찜 등 어육류가 포함됩니다. 흰 우유, 두유, 분유, 치즈 등 유제품과 밥, 빵, 국수, 떡 등 곡류도 노랑군입니다. 빨강군은 과일 통조림, 튀긴 육류, 가당우유(초코·딸기우유), 버터, 마요네즈, 아이스크림, 과자류, 케이크, 초콜릿, 패스트푸드 등입니다.

하루 한 시간씩 운동도 해야 합니다. 수영, 자전거타기, 농구, 축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운동을 시도해 보고 본인에게 가장 즐거운 활동을 찾아봅시다. 운동이 싫거나 학업으로 시간이 없다면 일단 가만히 있는 시간이라도 즐기는 게 좋습니다. 휴대폰 보기, 인터넷 게임, TV 시청 등을 하루 두 시간 미만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서민석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하루 세끼를 균형 있게 먹고, 단순당(설탕, 액상과당 등) 섭취를 줄이며,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삶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매경헬스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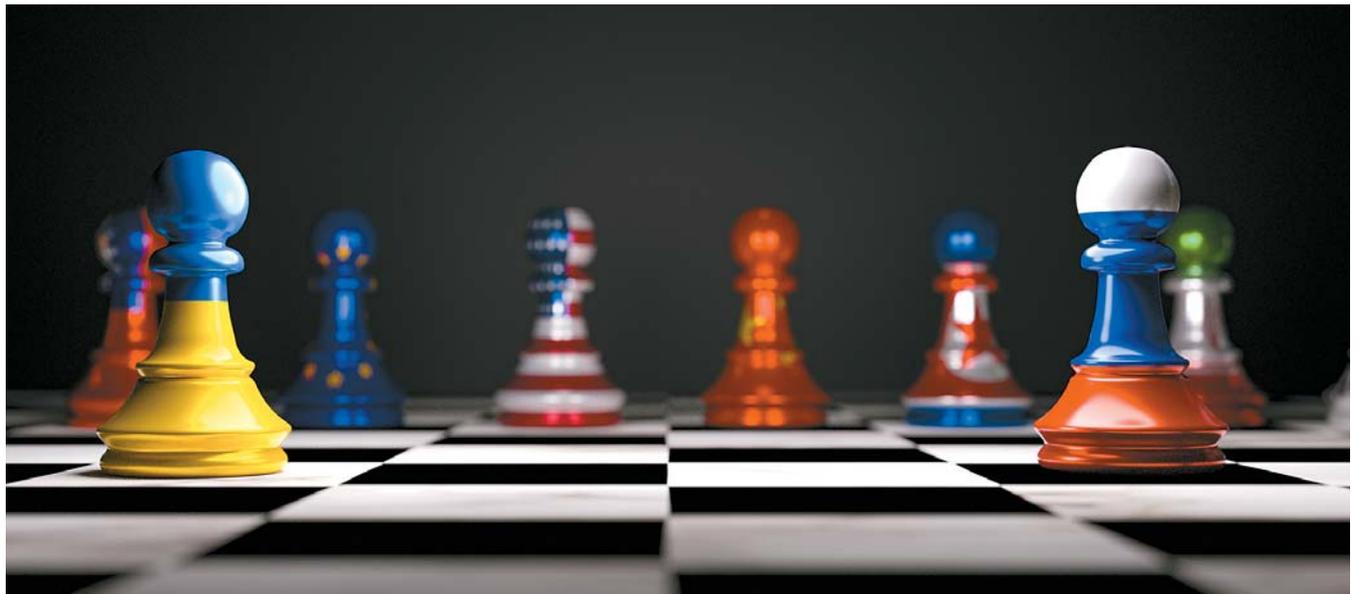
우리나라 9~17세
비만율 14.3%,
5년 새 4.2배 증가

‘신호등 식습관’
신체 활동 늘려야
비만 예방·관리 도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트럼프가 끝낼까



세계는 지금
World News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세계 여러 나라가 얽혀있는 모습을 체스판으로 나타낸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벌써 3년, 트럼프 공약 성공?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2월 24일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만 3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길었던 전쟁의 고통과 피해 끝에 비로소 종전에 한 발짝 다가섰는데요. 1월 20일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나라의 전쟁을 끝내겠다는 대선 공약 수행을 위해 두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인 2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의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되찾을 때라고 밝혔습니다.

왜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아닌 프랑스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바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단순히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그 역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역사

이 전쟁은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러시아는 평소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에 가입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성장하고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친해지는 걸 원치 않았던 러시아가 먼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이죠.

사실 두 나라의 갈등은 시간을 거슬러 201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점령하면서부터 두 나라 간의 균열이 발생했는데요. 이후 우크라이나 내의 친러성향 집단에 러시아가 군사적인 지원을 하며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이번 전쟁은 단순히 두 나라 간의 문제가 아닌 다양한 나라들이 함께 얽혀있었던 큰 사건이었던 거죠. 따라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을 대표한 마크롱 대통령이 두 나라의 종전을 위해 정상회담을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강요된 종전, 좋은 해결 방법은?

2월 28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간 종전을 위한 정상회담이

진행되었지만, 전쟁에 대한 입장 차이로 잠정 합의되었던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일명 광물 협정)’이 결렬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희토류 등의 광물 자원을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공동 개발하고 양국 공동 기금에 재투자한다는 것으로, 지금까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군사·재정적 비용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러시아에는 우크라이나에 유럽 평화유지군을 배치하는 것을 제안했는데, 이는 현재 북한과 휴전 중인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형태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2월 25일 크렘린궁을 통해 해당 제안에 ‘수용 불가’라고 밝혔다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11일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사우디에서 9시간에 걸친 회담을 통해 ‘30일 휴전’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광물협정’을 가능한 한 빨리 체결하는 데에도 합의했다며, 곧 러시아도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협상과 관련된 내용을 접한 사람들은 ‘트럼프의 강제적인 태도와 강요된 평화가 걱정이다’라는 의견과 ‘그래도 더 이상의 피해를 보는 것보다 종전이 우선이다’라는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한국전쟁과 비슷한 점 많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한국이 겪었던 6·25전쟁과 유사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어 1953년 7월 27일 미국과 유럽연합의 중재로 약 3년 만에 휴전을 맺게 되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 종전 협상은 당시 한국의 휴전 협상과 그 형태가 유사합니다.

또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었다는 점, 한국전쟁을 끝내는 것이 그 당시 새로 당선된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 등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인해 2025년 2월을 기준으로 러시아 측은 80만명, 우크라이나는 100만명의 군 사상자가 발생했고, 수만 명의 민간인 사상자와 1000만여 명의 사람들이 피난을 위해 나라를 떠났습니다. 3년간의 긴 아픔을 딛고 2025년에는 최대한 빨리 두 나라의 전쟁이 끝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현진 연구원



러시아 입장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 반대

우크라이나

나토가입 희망
미국 지원 및 안전보장

미국

러·우 전쟁 종결
천연 광물자원 공동개발



한국도 딥시크를 만들 수 있을까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2학년 문현승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가 불러온 AI 쇼크로 전 세계 AI 시장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에 반해 뒤처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순영 국민연합 AI미래포럼 의장은 “한국이 앞으로 2년 내에 AI 분야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글로벌 상위권 그룹에서 완전히 탈락할 수 있다”며 위기감을 표명하였습니다.

한국 AI 시장이 부정적인 전망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연구개발 예산을 전년 대비 14.6% 삭감하면서 기업들의 투자 위축, 스타트업 성장 한계의 문제가 부상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최상위권 인력의 의대 집중, 정치적 논란으로 인한 사회적 관심 분산 등의 여러 요인이 겹쳐, 한국 AI 산업의 성장 동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딥시크 쇼크’를 통해 우물안 개구리식 사고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지금처럼 AI 시장을 좁은 관점으로만 바라본다면 글로벌 AI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언젠가 한계라는 벽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AI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한국도 AI 강국으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의대 광풍을 막을 방법은

대전중학교 3학년 한예은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 의대 열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수능에서 만점이나 우수한 성적을 받으면 의대에 진학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수능 만점자가 서울대 의대가 아닌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에 진학했다는 사실이 뉴스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은 의대 선호 현상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의대 열풍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 재분배가 필요합니다. 동아일보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대 진학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로 응답자의 48.4%가 ‘높은 소득 수준’을 꼽았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사와 공공기관 연구원은 모두 안정적인 직업이지만 소득 차이는 두 배 이상 납니다. 결국 이공계를 포함한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대 열풍은 대한민국 이공계의 ‘블랙홀’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의 의미를 떠올리게 합니다. 따라서 첨단 산업에 종사하는 직업군의 소득을 높이고, 창업과 도전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기회가 열릴 때 우리는 더 이상 ‘의대 열풍’과 같은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파트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

광남중학교 3학년 조인호

한국의 건설 사고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2023년 4월 29일, 인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국에서 건설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 일까요? 전문가들은 중요한 원인으로 안전불감증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설계 과정에서 비용 절감을 이유로 철근 양을 줄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는 안전보다 비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한국은 이런 건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후속 대책 마련에만 급급할 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응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안전을 소홀히 하는 건설사의 태도는 결국 많은 사람의 삶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마치 황급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의 피해자가 내일의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건설사는 안전불감증을 철저히 근절하고, 정부는 건설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유지보수 시스템을 법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국회와 협력하여 보다 강력한 법적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다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愚)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로음료 인기는 선(善) 풍?

제일여자상업고등학교 1학년 서지아

제로음료가 청소년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칼로리에 대한 부담이 작아 많은 사람이 선택하고 있지만, 과도한 섭취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설탕 대신 사용되는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aspartame)이 인슐린 수치를 높여 혈관 건강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우려됩니다.

청소년의 제로음료 섭취에 대한 연구 자료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설탕이 함유된 음료와 제로음료를 비교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에, 청소년에게 제로음료가 적합한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제로음료=체중 감량’이라는 인식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NHANES) 결과에 따르면 저칼로리 음료를 섭취한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비만 확률이 70%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저칼로리 음료가 식욕을 증가시켜 오히려 체중 증가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제로음료를 마실 때는 식욕 증가와 비만 위험을 인지하고, 가끔씩 적정량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이나 천연 주스와 같은 음료를 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건강을 고려하는 선택이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공인번호 : 기획재정부 제2021-201호
등록번호 : 2012-0277호

50회

경제·금융이해력인증시험

틴매경 TEST

시험일

2025.05.24(토)

접수기간

2025.04.07(월)
~ 05.12(월)



매일경제경제경영연구소
*공식 인스타그램
@mknews_lab



*공식 유튜브
매테나

자격명 : 경제금융이해력인증시험(틴매경TEST) | 자격의 종류 : 국가공인민간자격(A+,A,B) / 등록민간자격(C,D)
응시료 : 2만원 | 환불규정 : 정기접수 마감일까지 환불 신청시 응시료 전액 환불(송금수수료 제외), 정기접수 마감일 이후 환불 불가
발급기관 : 매일경제신문사 | 대표자 : 장대환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90(매경미디어센터)
연락처 : 02-2000-2469 | 홈페이지 : <http://mktest.org> | 이메일 : mktest@mk.co.kr